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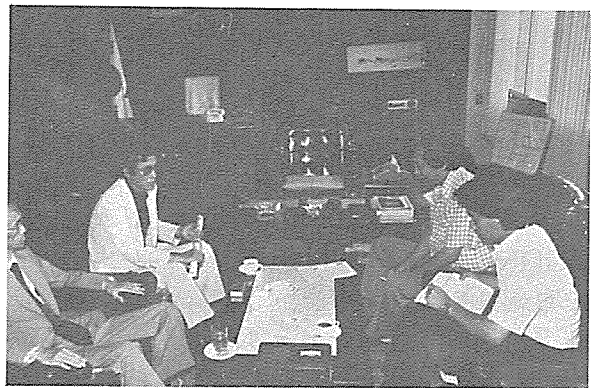
“理想的인 住宅設計의 條件”

설계자세 / 방향 / 시공 · 감리 / 관계법규를 중심으로 /

다음은 住宅設計作品 特輯과 연관된 对談으로 이번 특집이 平面的인 誌上作品展만으로 그치지 않고, 實際 住居환경을 돌아보고 깊숙히 投影해 봄으로써 보다 좋은 計設作品活動에 기여하고 나아가 아름다운 生活환경 造成에 이바지 한다는 뜻에서 이와 관련된 特輯对談을 세차례에 걸쳐 마련했다.

그 첫번째가 ① 住宅設計의 諸問題点, 두번째가 ② 아파트 건립 이대호가 좋은가, 세번째 ③ 住居環境으로서의 住宅등으로 분류해서 設計者가 생각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共同住宅환경으로서의 아파트의 実相, 그리고 設計者와 使用者와의 대화를 통해 알아보는 住宅의 현안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方向設定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이 对談을 위해 学界 官界 業界 그리고 실제로 作品활동을 하는 本회會員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보다 立体的으로 住宅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밝혀주셨다. / 편집자/



- 사회/安箕泰<동화건축 대표, 본회 이사>
- 대담/俞景哲<주·종합건축대표·本회회원>
劉圭成<범양종합건축대표·本회회원>
洪淳寅<대우건축대표·本회회원>
- 일시/1981·8·29일/本회 회의실

□ 住宅은 사용자에 대한 愛情을 갖고 設計해야.

□ 安 住宅作品誌上展이라고도 할 수 있는 本誌 9月号 特輯과 결들여 주택과 관계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루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住宅設計의 제반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또 그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方向을 우선 建築主의 문제 그리고 設計作業, 工事監理문제 또 그밖에 과정별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길요. 먼저 洪순인씨부터...

□ 洪 먼저 설계작업에 있어서 建築主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문제인데, 제 경우에는 건축주를 「오너」 즉 돈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치않고 使用者로서 평가해야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건축가는 건축주를 최종 사용자로서 여기고 건축가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애정에

서부터 출발해야만이 좋은 設計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취미나 기호에 따라 設計를 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전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경우 건축가가 사용자에 대한 애정이 결핍되고, 애정이 결핍된 세계는 결국 좋은 作品이 될 수 없지요. 이것이 건축주에 대한 문제고 다음에는 주택설계에 관한건데, 住宅은 개인과 가정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곳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후락시빌리티」라는 관점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처음 설계를 할 때는 가족이 5명이었으나 그후 그 이상이 되었고 더 지난후에는 또 그 이하로 사용인원이 줄었거든요. 이런 경우 설계를 변경해서 구조를 고치려고 해도 당초의 설계가 「후락시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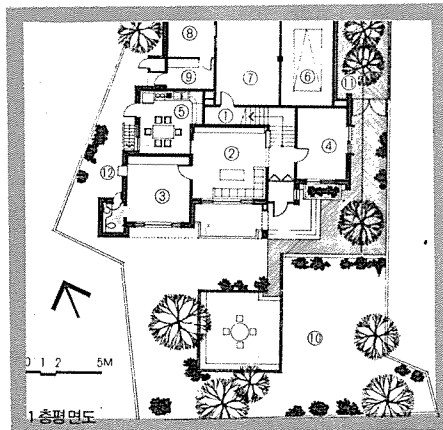
티'라는 문제를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좀더 융통성있는 주택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安 홍순인씨의 주택에 관한 지론은 상당히 經驗이 바탕이 되어서 얻은 결론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다음은 유규성씨께서 말씀해주시죠.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특히 주택설계의 방향 같은것 말입니다.

□ 劉 우리나라 주택의 설계방향이라고 할까요—. 개념이 옛날부터 사랑방을 위주로한 주택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승돼서 「리빙·룸」에다 거실을 만들어서 활용성이 적으면서도 값있는 것들을 장식해놓고 단지 손님접대용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또 주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이런것을 지양하고 제일 먼저 改造되어야 하는 곳이 食堂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택가운데 가장 버림을 받고 있는곳이 식당아닙니까?구석진곳에 배치돼서 밥만먹고 마는 그런곳으로 전락되고 있지않아요.

식당은 온가족이 모일 수 있는곳으로 하나의 家族室로서의 이용될 수 있도록 제가 設計한곳은 앞쪽으로배치해봤습니다. 그 결과 모두 좋아 하더군요. 좋은 마당과 화단을 두고 뒷쪽으로 식당을둘러놓을 필요가 없는거죠. 평수가 작아도 거실과 식당을 한 「홀」로 만들어서 처리해봤습니다. 활용가치가 더 있고, 主婦들의 作業室로서의 구실도 큰 것 같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볼때 주택은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현재에만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가족구성 인원도 길어야 5년정도면 변하게 되고, 또 상품가치도 배제할 수 없는거죠.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流行에 너무 민감해서는 곤란하고 内部나 外部장식도 하나의 통일된 「톤」이 있어서 나름대로 韓國의분위기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경우 주택설계의 기본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 未来指向的인 設計가 필요

□ 安 네, 아주 의욕적인 주택설계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홍순인씨와 일맥상통하는 면이있는것 같군요.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未来指向的이고 공개념으로서 設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유경철씨께서 다음 말씀을 해주시지요.

□ 俞 저는 時代的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 주택을 설계하고 감리하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960년대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그전에

도 있었읍니다만..., 그당시 우리나라 주택상황은 60년대 후반의 월남전쟁과 관련해서 所有慾 또는 과시욕으로 해서 그리고 外國文物의 무비판적인 수용태세에서 생겨난것이 후래드슬라브 주택이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이없는 造形美를 보이고 있잖아요. 또 서민층에서는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택과 소주택의 거리감이 없지않아 있었읍니다.

그다음 1970년대인데 이때는 흥미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적불명의 건축물이 나오고 치장하고, 또 소비가 미덕이었던 시절로서 건축계가 혼란했던 시기였읍니다. 결들여서 그 무렵에 아파트붐이 일기 시작할것도 같은 시기였죠. 이럴때에 우리건축가가 설계자로서 정확한 자기 좌표를 가지고 「오너」를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했느냐 하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렇게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0년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건축가로 과연 이래야만 했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스스로 반성했어야했고, 건축주를 계도하고, 또 전문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것같읍니다. 그래서 時代的인 배경을 전반, 후반, 그리고 현실을 나누어 말씀드려 봤읍니다.

□ 安 유경철씨는 時代的으로 分析해서 그동안의 경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설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기능면에서 또는 외관면에서 과연 어떤 설계가 돼야하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읍니다. 아울러 全体的인 면에서 주택과 환경의 조화에 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월여전에 본회를 방문한 대만건축사 일행가운데 젊은분이 우리나라 집단주택의 기와지붕에 원색칠한 것을 보고 왜 그렇게 칠해져 있는가, 그 까닭을 물어요. 어떤 規制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대답이 있었읍니다만, 그런건 아니고 하나의 유행같은것이다.

다른집도 그러니까 그 옆집도 보기 좋게 다른색으로 입힌 것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이 계속지만 국적불명의 건축물들, 주택들이 난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상품으로서 주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설계자로서의 입장에서 이런 등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洪 잘못된 주거환경, 기능, 혹은 방향등을 바로잡는것은 어려운것 같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쉬운면도 있습니다. 다른 商品(?) 과는 달라서 건축은 건축사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주가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해도 결국 설계하는 것은 건축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올바른 공개념과 「비전」만 있다면 영동 뒷골목의 해피한 주택단지는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건축주들을 계몽해야겠고 건축사들의 자질이 향

상된다면 주거환경에 대한 「비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일정 수준이하의 주택이 문제인데, 예를들면 20坪이하의 주택이라든가 하는것 말인데요 이런것은 美国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랍니다. 일정수준 이상은 건축사의 의도에 따라 세워지지만 그 이하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건축사가 결국 하는일인만큼 건축주를 설득, 계몽하고 스스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기능면에서 말씀드리다면 기능은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는 곤란하다. 앞을 내다보고 유연성있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관에 대해서는 기존주택군(群), 환경에 대한 건축주나 설계자가 공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집만 잘지으면 된다, 우리만 화려하게 만들어야겠다하는 철학은 곤란하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하고 아직도 공동의식이 부족한것 같아요.

따라서 외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수 있는 설계자의 자기철학과 건축주의 이해가 있다면 우리 주거환경의 장래는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계몽하는 것과 자질향상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 劉 外觀문제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주택외관에 어떤 연관이 있는것 같아요. 예를들면 청기와가 예로부터 내려온 좋은 것이다. 하니까 오늘날에 와서 그 주택에 맞든 안맞든 청기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어떤 건축가가 집을 지어 놓으니까 저게좋다. 너도나도 모두 그렇게 짓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상한 주택이 되어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모방을 해도 규모있는 모방, 조화있는 모조품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 否定的으로만 볼 수 없어

□ 俞 두분께서 말씀하신것이 연관되는 말씀이신데... 저는 부정적이나 비관적인 방향에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될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현재로 나누어 말씀드렸는데 전반기에 지었던 집들이 근대에 와서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필요이상으로 크거나 와우아파트 같이 적거나 해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헛어버리는게 좋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전반기의 집들이 말입니다. 문제는 후반기의 집들이 문제인데 색상이나 형태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부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또 농촌의 개량주택이라는 것도 좋은점도 있지만 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부터 우리 건축사들이 이런것들을 바탕으로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할수있지 않은가하는 겁니다.

□ 安 상당히 개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젠가 유경철씨하고 새마을시찰을 초청받아서 간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범개량주택을 봤어요. 한데 주택이 그렇게 크고 한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즉석에서 유경철씨가 평면과 지붕모양을 스케치 해서 이런것이 진정한 주택의 개념이지 크고 호화스러운 것이 좋은것은 아니라고 그곳 군수에게 설명하는것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주택에 있어서의 단위면적문제 즉, 1인당 주거면적이 과연 얼마면 적당한가 하는 겁니다. 이점을 말씀해 주시죠.

□ 洪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주택의 1인당 주거면적이 2.5평으로 되어있죠. 그러나 평수의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큰집을 짓고자하는 사람의 의식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획정리를 하는 관청도 그 지역에는 어떤 규모의 집이 들어와야 한다는 기본구상을 해야할 줄 압니다. 다른 집은 다 작은데 어느집만 필요이상으로 크다면 문제가 되니까요.

이런점은 의식구조의 변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것 같습니다. 文物은 급속하게 변화했으나 전통적인 의식구조는 그렇게 급속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설계에 있어서도 現實과 의식구조의 상충현상이 간혹 빚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택설계도 전통적인 생활의 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 같은것도 참조해서 우리고유의 전통성도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劉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은 現實性에 따른 주거환경, 설계가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적불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현실에 따르다 보면 어쩔수 없는 겁니다. 생활양식이 바뀌에 따라 안방만으로는 안돼서 식당을 만들고, 화장실을 마련하고, 또 거실도 만드는거지 우리의 전통의식구조만을 따라 그것에 연연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상품적 가치성도 가미해서 설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친 호화주택등으로 해서 계층간의 위화감조성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이런것들은 건축사들이 막아야하고 또 하나의 과업으로 생각해야될 겁니다.

□ 俞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설계의 기본방향은 과거에는 파시적인 것에서 오늘날에는 실질적이고 실생활에 알맞는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간다고 보겠읍니다. 세대가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역시 변화의 요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를 생각할때 제자신은 꼭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공동의식이 높아지고 자기가 아닌 우리, 全体를 생각할 수 있는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주택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여깁니다.

다.

□ 安 그러면 앞으로의 設計方向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우리자신의 책임은 무엇인가 등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죠.

□ 俞 제가 70년대초에 UIA 총회에 참석한적이 있어요. 그때도 지금과 같은 문제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사람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당신이 살집을 지어 봤느냐해요. 그래서 못지어 봤다고 하니, 그러면 한번 지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그 해결방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말이 맞아요. 건축가의 책임도 스스로 살집을 지어보고 몸소 체득하므로서 느낄 수 있는것 같습니다. 건축주에 대한 건축가의 책임, 그리고 자기 作品에 대한 책임의식 같은것 말입니다.

□ 건축은 생활을 담는 그릇

□ 洪 그분이 참 좋은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건축가 스스로가 살집을 지어보았느냐하는 질문말이에요. 아주 섬뜩하게 받아드려야 한다고 느낍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생활을 알아야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집을 손수 짓고 살아보아야 한다는것은 생활을 아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되겠죠.

사실 설계를 하고 집을 짓고 감리를 해서 건축주가 입주하면 우리의 책임이 다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한 책임은 그후부터 책임질것이 더 많아요. 주택이 생활을 구속하는, 즉 옷이 제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옷이라도 부자유스러우면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을 담는 그릇은 생활을 아는 자가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제 집을 지어보아야 경제적인 면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집을 지을 때 자재에 대한 경제성을 퓌 많이 생각해서 설계를 한일이 있습니다. 생활을 안다는 의미라고 할까요.

□ 劉 저는 설계방향이라는 점에서 住宅의 規模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택도 젊었을때, 중년때, 그리고 노년때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에 따라 주택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물론 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수준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이겠지만 국민주택같이 일률적으로 15평형 20평형식으로만 못박는것 말고 말입니다.

□ 安 그러면, 좋은 말씀이 많았는데 앞으로의 실제적인 설계방향에 대해서 유경철씨가 말씀 좀 해주시지요.

□ 俞 이미 주택의 기업화, 즉 업자가 대단위로 주택을 세우는 시대에 와 있잖아요. 따라서 건축사들이 좀더 이부분에 손을 대서 나름대로 개연성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모방등을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사들이 좀더 연구하는 자세가 돼야 하겠읍니다.

□ 安 실제적인 설계방향에 대한 말씀보다 개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모방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건축자체가 모방의 반복이고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창작이라는 개념상의 문제가있지만-. 이런것은 건축뿐만 아니지만 말입니다. 때문에 어느정도 모방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 俞 제 얘기는 소위 철학이 결여된 유행건축가는 곤란하다 이거죠. 재미있는 예로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다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 집 할머니가 현관을 찾아나오지 못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하되 소화하고 받아드려야 한다는 뜻이죠.

□ 安 네, 건축주도 문제이지만 건축사도 자기과시적인 설계는 지양해야죠. 설계방향이라고 해서 평면 입면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꼬집어 말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개념을 놓고 얘기하는것도 좋을 것같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끌어왔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施工과 監理에 관해 말씀을 나눠 주시죠.

□ 洪 施工에 관한 얘기인데, 전체주택에서 소위 작품이라고 꼽히는 주택은 10%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속칭 "집장사"가 지어파는 집이거든요. 이런집들의 監理는 거의 형식적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것을 어기지 않았나 정도만 보거든요. 이런것도 좀더 규정화해서 색깔이라든가 형태도 건축사들이 설계한대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집장사를 아무나 할 수 없게해서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주거환경이나 주택의 질이 높아질 줄 압니다. 그런 방법같은것은 없을까 생각되는군요.

□ 劉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것 같군요.

□ 安 네, 어렵죠.

□ 劉 왜그러나하면 건축주자신들도 시공면에 임하게 되면 Cost문제인데, 집장사들은 같은 값이면 싸값에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관계로 차이가 나는것 아닙니까. 사람이 관계되서 좌우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그런면도 있겠지만...

□ 質이나쁜 住宅 발똥붙여

□ 俞 두분말씀 모두 좋으신 말씀인데, GNP가 높아짐에 따라 소위 집장사 집 같은것은 발을 붙이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천불시대로 접어들면 집장사가 부지할 기반이 없어질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집장사가 없어졌어요. 수주사항이 될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까지 기형적인 주택들이 왜 나왔느냐할것 같으면 다음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현행법상의 제반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현실에 맞는 법개정등으로 고쳐나가면 올바른 주택이 세워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安 시공감리와 연관해서 집장사문제가 대두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집장사의 개념은 개인 집장사에 한해서
겠죠. 때문에 이들의 존속여부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될것 같고 따라서 이들이 짓는 집에 따른 시공
감리상의 제문제에 대해 말씀요...

□ 俞 네, 집장사와 연관해서 어떤 법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뭔가하면 제가 집을 설계하고 감리한
일이 있는데 그집이 1년도 못가서 물이새거든요. 이런것
은 감리상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장을 찍
었다는 것으로 해서 건축사에게 법적책임을 묻거든요. 이
런것은 바로잡아야 될 줄 믿어요.

□ 劉 국민 수준과도 관계가 있는것 같아요. 국민수준
이, 특히 시공면에 있어 불출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질이
낮은 집장사 집은 발붙일 수 없는 거겠죠. 요즘은 집장사
집도 예전하고 같지않아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까요. 많이 좋아졌어요.

□ 安 주택시공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집장사
타령(웃음)이 나오게 되는데 곁들여서 주택과 관계되는
행정상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現實에 맞는 주택행정태야

□ 劉 주택과 관계되는 행정, 문제가 많습니다. 준공
과정 뿐만아니라 허가가 들어갈때부터 문제점이 많아요.
우선 요즘 통신설비허가필증이라게 있는데 이런건 있어
야 할 필요가 없는것 같아요. 또 하루 이틀에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수도 준공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무 형식적인 것으로, 소위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처
리되기 쉽거든요. 정화조 필증도 같은데 그 자체는 좋은
데, 사실은 대장균이 죽느냐 하는게 문제거든요. 한데 단
지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대로하
려면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는 용기를 개발해서 설치하
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또 시멘트제품판매확인증인가 하는것도 왜 필요한지 모
르겠어요... 행정의 간소화라는 측면에서도 이런것은 다
른 방법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어요.

□ 洪 제 경우는 조금 意見を 달리합니다. 그런것들이
번거롭기는 해도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문제는 행정관
에서 그런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만큼 단자시설을 잘
하고 하수도를 제대로 묻고 또 정화조를 설치하면 좋겠
는데, 즉 상식적인 것이 제대로 이행되면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것도 어쩔
수 없이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기에는 필요한것이
라고 여깁니다. 수준이 信用社会가 되면 이런제도는 저
절로 없어지겠죠.

□ 俞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개연성을
갖고 말씀드리면, 시행규칙 혹은 예규 같은것 중에는 실
제로 지켜질 수 없는 것이 만들어져서 속박을 받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一例로서 허가보다 한평이 증축되면 건축사는 몇개월
정지다. 두평이 넘으면 몇년이다. 더 심하면 이주 폐업이
다. 하는 것들은 지켜질수 없는것입니다. 또 이런 규정들
이 건축사에게만 저축이되는 겁니다. 건축주에게는 이주
관대하거든요. 사실은 하수도 상수도, 배전같은 것들은
건축주가 어기려고 하는데 실제로 건축주를 처벌하는에는
없어요. 막연하게 3백만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하는 식이
거든요. 한데 아직 하찮은 주택에 있어 건축주를 처벌했
다 소리는 못들어 봤어요. 애매하게 감리도장찍어준 건
축사만 다치지 않습니다... 차제에 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 劉 그보다 먼저, 합동아니면 허가 낼 수 없다는 세
제에도 없는 제도부터...

□ 俞 네, 말도안되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선결문제
죠. 어디 나가서 철폐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 형식적인 제도 빠른 개선 필요.

□ 洪 형식에 치우친 제도의 모순입니다.

□ 安 이렇게도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당국에서는
기준을 정해 줬는데 이걸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력
이 잘미칠수 있는 건축사를 처벌하는... 또 우리스스로에
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법이생긴거라고 여깁니다.
반성할점이 있는 거라고...

□ 俞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담을 높이쌓았다고해서 왜 건축사를 처벌하느
냐 하는겁니다. 건축사가 그렇게 설계해줬을리도 없고그
건 건축주가 한건데... 건축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발상자
체가 문제라 이겁니다. 건축주를 처벌해야죠.

□ 洪 교통사고가 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곁에
있던 예방을 위한 교통순경에게는 책임은 안문잖아요. 우
리 경우도 건축주의 행위는 사실 건축사와는 별개 문제인
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는게 모순입니다.

□ 俞 공공의 질서를 파괴한 가해자는 건축주니까 당
연히 책임도 건축주에게 물어야 하는데 건축사에게 책임
이 전가돼서 처벌을 받거든요.

□ 安 방관한 책임은 있는거 아닙니까?

□ 洪 그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정도지 형사적인 책임
까지는 곤란한거죠.

□ 俞 그래서 책임의 限界 처벌대상은 명확하게 선 을
그어 제도적 장치를 다시 만든 다음에 보다 발전적 으로
감리공단이라든가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할 줄 압니다.

□ 洪 이런 대화기회가 더 많아서 우리끼리 만이라도
이야기를 나눠 어떤 문제해결과 나아가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기회마련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 安 오랜시간 좋은 말씀고맙습니다. 오늘의 대담이
본지 주택특집과 연관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